

중국의 평화적 부상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연구*

A Study of Chinese Peaceful Rise and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송일호(Il-ho, Shong)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계영(Gye-Young, Lee)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목 차

- | | |
|------------------|----------|
| I. 서론 | V. 결론 |
| II. 시장경제정책의 성공 | 참고문헌 |
| III. 정치적 갈등 완화 | Abstract |
| IV. 문화 및 인적자본 개발 | |

국문초록

2050년경 중국이 21세기의 글로벌 가버너스를 바꾸게 될 전망이다. 중국의 부상은 다른 개도국들에게 중국식 발전모델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의 '평화적 부상'전략에는 긍정적 요소와 장애적 요소가 동시에 존재한다. 중국부상의 긍정적 요인으로는 개혁개방 정책의 성공과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로 구축된 중국경제의 세계화, 공산당의 통치 이데올로기 수정과 문화 민족주의의 적절한 이용으로 달성된 중국정권의 안정성, 그리고 유교사상의 활용과 인적자본의 강화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 파워의 제고를 들 수 있다. 중국의 대국부상은 동아시아에서의 강대국 지위를 회복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중국에게 동아시아는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는 생존권역(lebensraum)이다. 이를 위해 지역 경제협력의 제도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ASEAN이 추구하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핵심가치는 상호존중, 공동번영과 평등주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다원주의(pluralism)인데 중국의 정책인 조화로운 세계, 평화공존과 가치관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 공통된 가치를 통해서 동아시아 지역의 긴장해소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인 성공과 소프트 파워를 앞세운 지역패권 전략으로 과거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되찾으려 할 것이다. "동아시아에 근거를 두고 세계로 나아간다"는 동아시아 전략의 성공을 기반으로 세계규칙의 조정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은 중국의 '평화적 부상'전략의 최대 수혜국이 될 것이다. 중국의 부상이 주변국, 특히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한데, 현재보다 상품 이동, 노동력 이동과 양국간 자본이동의 규모가 훨씬 더 커져 육상, 해상에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역무역협정 체결으로 상호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다.

주제어 : 중국의 부상, 화평 굴기, 베이징 컨센서스, 조화세계, 경제적 상호의존

* 본 연구는 2012학년도 동국대학교 논문게재장려금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I. 서론

중국 제4세대 지도부의 국가발전전략은 화평굴기(和平崛起), 즉 평화적 부상(peaceful rise)이다. 화평굴기는 지양저민(江澤民) 정권과 차별화되는 국가발전 전략일 뿐 아니라, 서방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중국위협론을 반박할 수 있는 대외전략이다. 중국정부는 중국의 부상이 현존하는 국제질서를 파괴하지 않을 것이며, 주변국의 번영과 안정을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의 부상은 국제사회에 위협이 아니라 기회이며 국제사회의 번영, 발전, 평화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평화적 부상’은 2005년 이후 조화외교의 이념으로 나타났다. 그 내용은 첫째, 각국의 국가통일 수호권리를 존중하며, 둘째, 문명 상호포용론을 강조하고 문명의 충돌(clash of civilization)에서 Samuel Huntington이 제기한 문명충돌론을 반대하며, 셋째, 일방주의(unilateralism)을 반대하고 다자주의(multilateralism)를 지지하며 넷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등 지역경제 통합을 추진해 호혜공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¹⁾

중국의 부상은 평화적 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경제는 정보화시대로 진입하여 지식이 경제성장의 핵심적 요소가 되어 자원과 자본의 지위를 대체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은 교육과 과학기술 발전으로 완성된다. 1999년 중국정부는 새로운 교육방침을 발표했는데, 사립학교의 발전과 교육의 상업화를 고취하였다. 또 중국의 부상은 중국의 인구가 미국의 4.5배이기 때문에 중국내수시장의 확대를 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시장은 중국의 13억5천만 명의 경제성장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중국정부는 내수확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내수 시장의 확대가 지속가능한 고속성장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이다.²⁾

중국의 ‘평화적 부상’은 긍정적인 요소와 제약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본 논문은 긍정적인 요소를 분석하고자 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2025년경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를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100년 가까이 지속된 미국주도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중국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임박했다. 중국 부상의 최대 수혜국은 한국을 비롯한 중국의 주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 이희욱, 《중국의 국가 대전략 연구》, 서울, 폴리테이아, 2007년, pp.72-101.

2) 閻學通, 孫學峰 《中國崛起與其戰略》,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5, pp.65-66.

II. 시장경제정책의 성공

1. 개혁개방정책의 성공

1978년 개최된 중공 11기 3중전회에서 국정의 프라이어리티를 현대화 건설로 정하고,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하였다. 중국정부가 점진적 개혁을 추진함으로 사회안정을 유지하여, 중국경제는 아편전쟁 이래 존재하지 않았던 평화적 안정의 환경하에 성장하였다. 경제의 발전측면으로 보면 중국은 이미 부상중인 신흥대국이다. 경제성장의 ‘유출(流出)현상’이 군사, 안보, 국제 영향력등 다방면에 영향을 끼치고, 자연자원, 인력자원등 요소와 결합하여 국력이 현저히 신장되었다³⁾. 후안강과 왕야화(2005)가 분석한 <표 1>의 5대국 종합국력 비교(1980-2003)에 의하면 개혁개방 직후인 1980년 과 2003년의 5대국 종합국력 비교에서 중국이 가장 큰 성장을 보이고, 미국과 러시아는 국력이 쇠퇴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5대국 종합국력 비교(1980-2003)

국가	1980	1985	1990	1995	2000	2003	1980-2003 변화량
중국	4.7	5.3	5.6	7.1	8.7	9.99	5.25
인도	3.3	3.6	3.7	4.0	4.5	4.8	1.49
일본	6.0	6.3	7.3	8.3	7.5	6.99	0.96
러시아			3.2	2.8	2.9	2.9	-0.33
미국	22.4	22	22	21.9	22.5	22.2	-0.21

출처; 胡鞍綱, 王亞華, 《國情與發展》, 北京, 青華大學出版社. 2005. p.17

2011년 중국은 GDP 가 \$7조 3000억에 달하여 일본을 초과하여 세계 제2위의 경제규모를 갖춘 경제대국이 되었으며, 일인당 GDP도 \$5400에 달하였고 수출입에서도 2011년 \$3조를 초과하였다.⁴⁾ ‘중국의 3대 상품 수출국 총액 비중(1963-2004)’에 의하면 미국으로의 수출액 비중은 ‘상해공동성명’ 직후인 73년보다 2004년의 비중은 138배나 증가하였다⁵⁾.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세계 1위로 2012년 6월말 \$3조 2천 4백억에 달해, 2위인 일본의 \$1조 3000억, 7위인 한국의 \$3000억에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며 세계경제의 강자로서 전 세계의 석유, 천연가스,

3) 丁松泉, 《中國崛起與中美關係》,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5, p.72.

4) 邵宗海, 《中國和平崛起與中國現代民族主義的互動》, 臺北, 韋伯文化國際出版有限公司, 2009, pp.92-93.

5) 胡鞍綱, 王亞華, 《國情與發展》, 北京, 青華大學出版社, 2005, p.59.

곡물, 철강, 귀금속 등 자원확보 경쟁에서 앞서고 있다. 또한 러시아,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석유에도 해당국가에게 장기차관을 제공하며 10-20년간의 장기 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인하여 자원부국들이 재정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데, 중국은 외환 보유고가 넘치고 인구에 비해 자원이 부족하여 해외진출 자원확보 전략으로 해당국에 유화적으로 접근해서 큰 성과를 이루었다.

중국은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에 진출하면서 상대국에 제공하는 차관중 일부로 중국의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해당국의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을 하여, 석유확보와 과잉 노동력의 해외고용,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또 호주의 철광 및 비철탄광 채굴권 확보에도 지분인수방식으로 진행하고, 브라질산 원유확보, 곡물 장기계약, 더 나아가 미국의 멕시코만에도 지분 인수방식으로 석유채굴권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13억 5천 만명의 중국 인민의 빈곤탈출이 실현되는 것이, 중국과 세계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1978년 덩샤오핑(鄧小平)이 추진한 개혁개방이래의 비교우위에 의지한 성장이 경제기적을 탄생시켜, 세계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공헌을 하였다.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은 공업화전략과 도시화전략을 통하여 국민의 의식주를 해결하였다. <표 2>의 도시화율 국제적 비교(1975-2003)는 중국 개혁개방전 1975년 도시화율이 17.4%에 그쳤으나 도시화 정책을 통해 2003년 도시화율이 38.6%로 증가하여 증가량이 21.2%에 달한 것을 보여준다. 세계평균 도시화율 48%에 근접하여 도시화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표 2> 도시화율 국제적 비교 (1975-2003)

	1975년 도시화율	2003년 도시화율	변화량	도시인구 연평균증가율
중국	17.4	38.6	21.2	4.1
저소득 국가	21.8	30.2	8.4	3.3
중등소득 국가	35	53	18	2.9
고소득 국가	75	78	3	0.8
개발도상국	26	42	15.9	3.6
세계평균	38	48	10.4	2.5

출처;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2,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162-163.

도시화율을 보여주는 지표중 <표 3> 중국도시인구 수도, 가스사용 비중변화(1985-2005)에 의하면 도시주민들이 상수도를 사용하는 비율은 1985년 43%이었으나 2005년 91%에 이르렀

고, 가스사용 인구는 1985년 14.3%에 그쳤으나 2005년 82.2%에 달하였음을 보여줘 실질적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표 3〉 중국도시인구 수도, 가스사용 비중변화(1985-2005)

지표	단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도시인구	억명	2.1	3.3	3.8	3.9	3.6
총인구 점유율	%	19.8	28.9	31.4	30.8	27.5
수도사용 인구	억명	0.9	1.6	2.2	2.5	3.3
도시인구중 점유율	%	42.9	48.5	57.9	64.1	91.1
가스사용 인구	억명	0.3	0.6	1.3	1.8	2.9
도시인구 점유율	%	14.3	18.2	34.2	46.2	82.2

출처: 胡鞍鋼, 《中國崛起之路》,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7. p.81.

중국이 급격하게 부상한 것은 중국 자신의 노력에도 기인 하지만, 1997년 동 아시아 금융 위기이후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 쇠퇴로 인한 반사적 이익, 2001년 9.11사태 이후 미국의 안보정책 전환으로 잠재적 적국에서 협력자, 동반자 위치로 중국의 지위전환, 그리고 2007-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발생한 미국의 리더십 약화에도 기인한다. 중국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은 가장 중요한 부상의 요인이다, 부의 양극화(polarization of wealth)가 존재하는 가운데에서도 외자의 끊임없는 유입으로 외환보유고의 증가, 지속적인 경제력의 증가로 세계무대에서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2.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

경제세계화는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국제자본이동의 규모의 증가, 그리고 기술의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확산을 통하여 세계 각국의 경제적 상호의존이 증가하는 현상이다. 제2차 세계대전 초기 세계무역총액은 겨우 \$500억이었으나 2004년에는 세계무역총액이 \$18조 6000억에 달해 세계경제가 하나가 되는 글로벌 경제체를 형성하였다. Angus Maddison(2005)에 따르면 1973년 이후 세계무역 연 증가율이 5.22%인데 비하여 중국 무역의 연 증가율은 16.5%에 달하며 세계GDP 연 증가율은 3.05% 인데 비하여 중국의 GDP 연 증가율은 9.4%에 이른다.

〈표 4〉 세계와 중국무역증가 및 증가탄성비교(1820-2004)

시기	세계무역 증가율(%)	세계GDP 증가율(%)	무역증가탄성	중국무역 증가율(%)	중국GDP 증가율(%)	무역증가 탄성
1820-1870	4.98	0.93	4.5		-0.37	
1870-1913	3.40	2.11	1.6	2.6	-0.56	
1913-1950	0.90	1.82	0.5	1.1	-0.02	
1950-1973	7.88	4.9	1.6	2.7	5.02	0.54
1973-2001	5.22	3.05	1.7	16.5	6.84	2.42
1820-2001	3.43	2.22	1.8			
1979-2004				16.7	9.4	1.8

출처; Angus Maddison, 《세계경제 천년사》, 2005.

시장, 자원, 환경, 경제성장에 경제세계화가 영향을 주어서, 각국에서 경제력이 과거보다 중요해진다. 무역, 자본이동, 다국적기업의 활동을 통한 국가간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기득이익 파괴를 두려워 한다. 경제세계화는 양날의 칼과 같아서, 기회와 도전을 가져다 준다. 경제세계화는 각국에 이익을 주며, 위협에도 당면하게 하여, 각국은 세계화의 대가와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경제세계화는 후발국가에 평화적 경쟁을 통하여 국제시장을 확보하고, 자원을 획득하고,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게 한다.

각국 경제의 상호의존성은 인류의 공동이익을 증가시켜, 경제, 안보측면에서 국제협력을 강화하게 한다. 경제 상호의존성의 증대는 국제사회로 하여금 중국의 평화적 부상을 용인하게 한다. 중국이 경제세계화를 통하여, 세계 각국의 기술, 자금과 시장을 이용하여, 현대화를 추진하였다. 냉전후 형성된 국제정세의 다극화는 강대국 관계를 재설정하여, 중국이 경제성장에 국가역량을 집중시키는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였다. <표 5>의 2000-2006년 세계경제 성장에 대한 중국의 공헌율에 의하면 2001년 이후 시장환율 기준으로 11%~19%에 달해 중국 경제 성장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공헌율이 상당히 높다.

<표 5> 2000-2006년 세계경제 성장에 대한 중국의 공헌율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세계경제 성장	4.9	2.6	3.1	4.1	5.3	4.8	5.4
중국을 제외한 세계경제 성장	4.0	1.8	2.0	2.8	3.9	3.3	4.0
세계경제 성장에 대한 중국의 공헌율 (ppp)	17.7	33.6	36.9	32.4	26.8	30.3	26.4
세계경제 성장에 대한 중국의 공헌율 (시장환율)	6.6	18.7	16.3	12.8	10.3	16.5	11.4

출처; 中國現代國際關係研究院, 《國際戰略與安全形勢評估 2007/2008》, 北京, 時事出版社, 2008, p.33.

<표 6> 전 세계 경제성장에서 4대국의 공헌(1980-2002)에 의하면 독일, 일본, 미국과 비교해도 1990년 이후 중국의 GDP성장 공헌율이 27%에 달해, 미국의 21%, 독일의 2.48%, 일본의 2.78%보다 훨씬 높아 세계경제가 중국의 경제성장에 의존적이다.

<표 6> 전 세계 경제성장에서 4대국의 공헌(1980-2002)

	1980-1990	1990-2002	1980-2002
GDP 증가율			
중국	9.29	9.69	9.51
일본	4.09	1.07	2.43
독일	2.19	1.48	1.80
미국	3.17	2.93	3.04
세계	3.23	3.00	3.11
GDP성장 공헌율			
중국	10.25	27.09	21.31
일본	10.56	2.78	5.81
독일	3.92	2.48	3.04
미국	21.25	20.99	21.09
세계	100	100	100

출처; 胡鞍鋼, 王亞華, 《國情與發展》, 北京, 青華大學出版社. 2005. p.194.

중국은 경제세계화 참여를 통하여 각국과 이익공동체를 형성한다. '5대국 부상시기 GDP와 공업생산증가'에 의하면 미국은 1870년~1913년 부상시기 GDP 평균증가율이 3.94%, 공업생산

평균증가율이 5.4%에 그치는데 중국은 GDP 평균증가율이 9.4%, 공업생산 평균증가율이 11.2%에 이른다.6) <표 7>의 세계 GNP 총량중 중국과 주요국가 점유비중(1700-2015)'은 2015년 중국의 GNP비중이 17%로 일본의 6%보다 훨씬 높고 미국의 17%와 같다

<표 7> 세계 GNP 총량중 중국과 주요국 점유비중(1700-2015)

년도	중국	일본	유럽	미국	러시아	인도	세계 총가치
GNP, 1990년 (\$10억)							
1700	82	16	83	0.6	12	81	359
1820	228	20	188	12	33	111	706
1952	305	202	1758	1677	512	226	5916
1978	935	1446	5220	4062	1715	630	18683
1995	3196	2476	7004	6149	648	1437	29421
2000	4277	2667	7848	7060	616	1834	34107
2015	9406	3337		9338		1776	53966
GNP비중(%)							
1700	23	4	23		3	22	100
1820	32	3	26	1	4	15	100
1890	13	2	40	13	6	11	100
1952	5	3	29	28	8	3	100
1978	5	7	27	21	9	3	100
1995	10	8	23	20	2	4	100
2000	12	7	23	20	2	5	100
2015	17	6		17		7	100

출처; 胡鞍鋼, 王亞華, 《國情與發展》, 北京, 青華大學出版社, 2005. p.26.

‘5대국 장기 경제성장 추세(1820-2030)’에 의하면 중국이 2030년 GDP 총량비중이 18%에 이르러 유럽의 13%, 미국의 17%를 추월하는 것으로 예측된다.7) 평화, 발전, 협력을 통해서만 동반성장 할 수 있다. 중국의 발전은 세계발전과 동조하고, 각국의 이익에 부합하여, 세계는 중국의 역할을 더 필요로 하게될 것이다.

1978년 중국공산당 제11기 3차 전체 중앙위원회에서 개혁개방 선언과 1991년 소련의 해체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 및 대외개방으로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주의 경제로 나뉘었던 세계경제가 하나로 통합되었다. 중국경제가 세계경제에 통합된 것은 세계화 확대에

6) 胡鞍鋼, 《中國崛起之路》,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7. p21.

7) 胡鞍鋼, 王亞華, 《國情與發展》, 北京, 青華大學出版社, 2005. p26.

커다란 역량이 되었다. 2001년 WTO가입이후 중국의 평균관세가 10.0%로 낮아짐에 따라 상품시장에서 한국의 평균관세를 16.1%보다 훨씬 더 큰 개방성을 보이고 있다.⁸⁾ 세계 상품무역 연평균증가율이 9%인데 중국은 평균 25%에 달해 어느 지역 보다도 수출입 증가가 왕성히 이루어지고 있다. 서비스 무역도 중국이 19%의 평균증가율을 보여 세계 평균증가율의 2배가 넘는다.⁹⁾

Ⅲ. 정치적 갈등 완화

1. 공산당의 통치 이데올로기 수정

중국정부의 개혁개방 정책을 중국인들은 신임하고 있으며 국민의 국가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짐에 따라 공산당도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지난 10년간 공산당 입당지원자가 매년 2천명이나 되는데 입당을 허가받은 사람은 1/10에 불과하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으로 공산당 간부들은 과거보다 교육수준이 높고 전문성도 뛰어나다.¹⁰⁾ 정치의 안정화와 강고한 지배연합의 형성, 사회단체의 체제내 포용은 공산당 통치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정치사회적 기반이 되고 있다. 공산당 통치가 지속될 수 있는 배경에는 국가체제 정비를 통한 통치능력 강화와 제도화가 있다. 중국공산당은 통치 이데올로기를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새로운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국가의 통합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가치 동일시, 정치 동일시를 통하여, 사회통합을 하고 있다.¹¹⁾ 통치 이데올로기의 수정은 공산당 지배의 안정을 가능하게 한 요인이다.

냉전후 이데올로기는 효용성을 상실하고 민족주의가 정권 합법성의 기초가 되었다. 민족주의는 민족에 대한 충성과 사랑으로 나타나 사회통합력과 감화력으로 사회를 안정화 시키고 정치 이데올로기를 동일화시킨다. 중국에서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대체할 수 있다.¹²⁾ 1990년에 들어 중국에 정치권력, 지식과 자본이 지배연합(ruling coalition)을 형성하여 노동자, 농민과 자영업자를 통치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공산당은 지양지민의 '3

8) WTO, *World Trade Report 2004* Appendix Table 1.

9) WTO, *World Trade Statistics 2005* Table I.3 I.4.

10) 마틴 자크, 안세민역,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 서울, 부키, 2010, p.290-293.

11) 李琪, 《中國和平發展與中國共產黨》, 北京, 中國中央黨校出版社, 2007. p.133.

12) 邵宗海, 앞의 책, pp.396-397.

개 대표론'을 2002년 제16차 공산당대회에서 채택하여, 당헌수정으로 민간기업인의 입당을 허용하였다. 계속해서 2007년 제10기 5차대회에서 사유재산 보호를 구체화함으로 체제내로 포용하는 포섭전략(inclusion strategy)을 통해 공산당의 외연확장을 성공시켰다. 또 공산당은 임금인상을 통해 지식인 집단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켰다. 그 결과 대다수의 지식인이 중국의 체제옹호세력으로 변화했다.¹³⁾

대국 부상의 정치적인 환경은 국가정치가 안정되어 장기간 내전의 가능성이 소멸되어야 한다. 한 국가의 정치체제가 불안정하여 내전 가능성이 있으면 그 국가의 에너지를 국가 부상에 집중할 수 없다. 중국에서는 청말 태평천국의 난과 의화단의 난, 신해혁명 이후 민국시기 군벌혼란과 국공내전, 그리고 마오쩌둥 시기 문화대혁명이 국가발전에 장애가 되었다. 부상단계는 부상국의 종합국력이 신속하게 증가하는 시기이다. 부상단계로의 진입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역량이 세계 강대국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한 것을 의미한다.

마오쩌둥 시기 중국공산당은 민중의 역량에 의지하여, 강한 정부를 만들어 분열된 중국을 단합시켰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킬 능력이 없었고 민주제도와 법치제도를 수립할 능력이 없어 문화대혁명이 발생하였다. 또한 신기술 혁명에 대해 대응할 능력이 없어 결국 경제체제가 붕괴하였다.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전 이래 중국은 시장지향적 개혁을 시작하게 된다.¹⁴⁾ 현재 중국과 외국학자들은 중국의 미래에 대해 지난 100여 년간 없었던 낙관적 전망을 하고 있다. '중화민족의 부흥'은 요원한 꿈이 아니다. 국가의 행정력과 시장요소 의 상호결합이 국가의 추진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건국후 부터 줄곧 강한 정부, 큰 정부를 유지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덩샤오핑은 중국의 시장지향 개혁에 중대한 역할을 했다. 1978년 11기 3중전회를 전후하여 과거 정부는 시장의 힘을 경시하여 잘 못된 정책을 채택하였다고 결론내림과 동시에 '계획경제를 위주로 하고, 시장경제를 보조로 하는 정책'을 12차 공산당 대회에서 채택하였다. 덩샤오핑은 중국과 기타 사회주의국가의 경험에서 계획경제의 단점을 보았으며, 서구의 안정적 발전, 신 기술혁명의 발전과 싱가포르, 타이완, 홍콩, 그리고 한국의 비약적 발전으로부터 시장경제의 장점을 보았다.¹⁵⁾ 중국은 82년 5차 전국인대에서 '사회주의 현대화'를 헌법에 삽입하며, 국가의 성격을 무산계급 독재에서 인민민주 독재로 수정하였다. 민간경제의 합법적 권리를 국가가 보호하여 중국정치의 안정성이 강화되었다.

13) 조영남, 《21세기 중국이 가는길》 서울, 나남, 2009, pp.34-44.

14) 王文章, 《中國現代化進程中的國家與市場》,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4, p.284.

15) 王文章, 앞의 책, p.288.

2010년 개최된 중국 공산당 17기 5중전회는 2011년 시작된 제12차 5개년 계획의 기본이념인 ‘포용적 성장’에 대한 거시적인 방향을 확정하여 향후 5년간 중국 경제정책의 청사진을 마련했다. 제12차 5개년 계획의 핵심은 성장의 혜택을 소외계층 등 전 국민들에게 골고루 분배하고 도농·지역·계층간 소득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내수시장을 확대해 조화로운 성장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5중전회는 도시 농촌간 격차 감소와 도시화 성장속도 증가를 위해 도시와 농촌을 분리해 관리해온 2원체제를 없애기로 결정했다. <표 8> ‘2010년과 2020년 전국 도시규모의 수와 구조, 인구구조’에 의하면 전국의 도시규모는 2020년 초대형도시 4%, 특대도시 6%와 대도시 12%로 대도시 이상이 22%를 차지하고 인구수는 대도시 이상에서 72%가 거주할 것으로 전망한다.

<표 8> 2010년과 2020년 전국 도시규모의 수와 구조, 인구구조

구분	2003		2005		2010		2020	
	도시수	인구	도시수	인구	도시수	인구	도시수	인구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초대형도시	2.3	26.6	2.5	26.8	3.2	28	4.0	30
특대도시	4.5	17.3	4.7	17.5	5.0	18.2	6.0	20
대도시	9.7	18.2	9.8	18.4	10	19	12	22
중등도시	34.1	20.8	33.8	20.5	33	19.3	31.4	16.5
소도시	49.4	17.1	49.1	16.8	48.3	15.4	46.2	12.4

출처; 中國城市建設統計年報(2003)

도시인구는 2010년 6억 4천만 명에서 2030년 9억 6천만명으로 증가하고 총인구 대비 도시 인구비중은 2010년 47%에서 2030년 6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¹⁶⁾

2. 문화민족주의의 출현

천안문사태 다음 해,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가 출현하여 사회, 지식, 정치적 집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보수주의는 전통적 보수주의자 즉 정통적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인 후 차오무(胡喬木), 덩리쥘(鄧力群), 경제적 계획주의자 천위엔(陳元)와 급진적 개혁가(경제적으로

16) 胡鞍鋼, 《中國崛起之路》,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7. p.79.

민영화 옹호자)사이에서 중간접점을 찾으려고 하였다. 신보수주의는 경제적으로 시장경제를 받아들이지만, 큰 국가의 역할을 기대하였다.¹⁷⁾

1978년부터 1992년까지 GDP에서 차지하는 중앙정부의 세입이 31.2%에서 14.7%로 떨어졌는데, 거시경제정책을 수립하기 힘들 정도로 중앙정부의 역량이 약화되었다. 지역주의가 확산되어 성(省)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를 상실했다는 견해도 나타났다. 1988년 사회과학원의 경제학자인 선리런(沈立人)과 다이위엔천(戴園農)이 이 현상을 ‘제후(諸侯)경제’라는 용어로 설명하였다. 이런 배경에서 정치적 통제와 경제적 시장화를 결합하여 중앙정부의 통제를 정당화하는 시도가 있었다. 신보수주의 사상의 중요한 설명자는 칭화(淸華)대학과 사회과학원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공산당 원로 천윈(陳雲)의 아들 천위엔이었다. 천위엔은 경제계획만이 중국의 부족한 자원을 사용해 공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고 개혁의 분권적인 현상을 비판했다. 동아시아 국가(NICS, 한국, 타이완, 싱가포르, 홍콩)의 경제성장을 모델로 하여, 국가는 ‘수동적인 심판’이 아니라 ‘꼭 필요한 행위자’라고 역설하였다. 그는 중국의 지방정부는 분권화만 지지하지 경제의 시장화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경제의 시장화는 중산층의 성장을 견인하고 중산층이 성장하기 까지 중국의 중앙정부가 중산층을 대신해야 한다고 하였다.

1991년 8월 소련에서의 쿠데타 실패는 중국정치에 분수령이 되었으며, 덩샤오핑은 남순강화(南巡講話)를 하였다. 중국청년신문은 ‘소련동란이후 중국의 현실적 대응과 전략적 선택’을 게재하였다. 현실적으로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와 급진적 개혁주의 사이에 위치하려는 시도를 하여, 서방의 이성주의와 중국적 전통에서 온 사회적 안정과 점진적 개혁을 희망하였다. 중국정부의 관심은 공산당을 혁명당에서 집권당으로 바꾸는데 있었으며, 현실적으로 사회적 안정을 강조하였다¹⁸⁾. 동구의 사회주의 붕괴와 소련의 해체로 중국의 지식인들은 세계화에 대한 재성찰을 하였다. 1990년대 다수의 중국 지식인은 정부예산의 감소, 부의 양극화, 관료의 부패를 걱정하였다. 소련붕괴 과정과 NATO의 확장과 서구의 2000년도 베이징 올림픽 개최 반대를 보며 사회 정치학적 안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문화민족주의가 나타난다.

17) Joseph Fewsmith, *China Since Tiananme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pp.75-76.

18) Joseph Fewsmith, 앞의 책, pp.83-98.

IV. 문화 및 인적자본 개발

1. 유교의 재활용

후진타오와 원지아바오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의 지도부는 유교사상을 통치이념으로 이용하고 있다. 민본주의를 국정 이데올로기로 제시한다. 국가목표로 조화로운 사회 건설, 평화발전 추구, 그리고 외교이념으로는 조화로운 세계를 제시한다. 중국은 사회주의, 민족주의, 유교가 혼합된 새 통치 이데올로기를 내세우고 있다. 중국은 춘추전국시대부터 2500년간 유교를 사회통합 이데올로기로 사용했다. 현대에서도 동아시아 모델은 유교문화와 중앙집권적인 국가주의를 결합시켜,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와 홍콩을 아시아의 선진사회로 발전시켰다. 유교는 고대사회뿐 아니라 현대에서도 면면히 이어지고 발전한 이데올로기이다. 백성을 중시하는 것은 중국전통문화의 핵심이념이고 주류사상이었다. 하늘과 사람을 유기적 결합체로 생각하여, ‘하늘과 사람의 일치’를 추구하였다. 중국 제4세대 지도부의 ‘과학적 발전관’은 인본주의에 가치를 두고 있다. 서방의 신자유주의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여 작은 정부, 시장 자유화, 방임주의, 정부규제 철폐, 민영화, 무역 자유화, 투자 자유화등 자본의 이익을 중시하는 것에 반하여, 중국의 과학적 발전관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집단의 이익, 공공의 이익추구를 목표로 한다. 교육환경과 위생환경의 인간개발지수를 향상시키는 것이 과학적 발전관에서의 인본주의 정신이다.

유교문화권에서 유교는 사회통합 이데올로기가 된다. 싱가포르의 이광요(李光耀) 전 수상과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전 수상은 “Look East정책”을 외쳤다. 서구는 파괴적이고 정복적인 사상을 가졌지만 동아시아의 유교사상은 자연친화적이고, 조화적이라고 주장한다. 유교와 결합한 중국의 중화주의가 부활하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의 대국’ 또는 ‘사회주의의 대국’이라는 표현도 사용하며 ‘염황의 자손(炎帝 黃帝의 子孫)’ 과 ‘중화진흥’이라는 슬로건을 외친다. 애국주의가 중화민족 응집력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¹⁹⁾ 중국의 전통의상인 치파오는 1950년 이후 중국에서 착용이 중단 되었는데, 1990년대 말 다시 나타났다. 중국의 당시 여성 부총리 우이(吳儀)가 1997년 홍콩반환시기의 공식행사 때, 치파오를 입은 것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인다.²⁰⁾

19) 히메다 미쓰요시, 김순호譯, 《20세기 중국사》, 서울, 돌베개, 2003, P.290-291.

20) Matthew Chew, “Contemporary Re-emergence of the Qipao”, *The China Quarterly* 189, March 2007, pp.144-161.

2. 인적자본의 개발

소프트 파워 강화는 중국의 미래발전 모델의 중요한 특징으로 높은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와 주민생활의 질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표 12>의 중국 경제성장 요소의 분석과 예측(1978-2020)에 의하면 중국의 경제성장요소중 인적자본 성장이 중요한 요소이다.

<표 12> 중국 경제성장 요소의 분석과 예측(1978-2020) (%)

지표	1978 - 1995		1990-1999	2000-2010	2010-2020
GDP	9.4	8.2	10.7	7.3~8.9	6.3-7.3
유형자본	8.8	7.9	12.4	11.0	9
인적자본	2.7	2.7	2.6	2.0	1.5
노동력	2.4	2.4	1.0	1.0	0.7

출처 胡鞍鋼, 王亞華, 《國情與發展》, 北京, 青華大學出版社, 2005, p.39.

중국은 1950년 건국당시 아프리카, 인도에 비하여 HDI가 낮았다. 2000년 중국의 HDI는 0.726이 되어 아프리카 평균 0.527, 인도의 0.577보다 월등하게 높으나 서유럽의 0.918, 북미의 0.934에는 못 미치고 있다.²¹⁾ 또 러시아의 HDI 0.781보다 조금 낮다.²²⁾ 중국의 HDI순위는 2003년 177개 국가 중 85위에 올라있고 성인 문자해독율은 91%에 이른다. 출생시 기대수명은 71.6세 이다.

<표 13> 중국 HDI 및 항목별 지표

년도	HDI 순서	국가총수	HDI	출생시 기대수명	성인문자 해독율	평균GDP(ppp)
1997	98	174	0.701	69.8	82.9	3130
1998	99	174	0.706	70.1	82.8	3105
1999	87	162	0.718	70.2	83.5	3617
2000	96	173	0.726	70.5	84.1	3976
2001	104	175	0.721	70.6	85.8	4020
2002	94	177	0.745	70.9	90.9	4580
2003	85	177	0.755	71.6	90.9	5003

출처;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1999-2003 New York.

21)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1870-2000*, New York

22)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New York, 2001

2003년 중국의 HDI는 0.755인데 세계평균 0.741보다 조금 높고, 중국의 건강지수는 0.78으로 세계평균 0.70보다 높다. 또 중국의 교육지수는 0.84이며 세계평균 0.77보다 높다.²³⁾ <표 14>의 중국의 발전목표 및 진전(1990-2015)는 빈곤감소, 기아인구 감소와 교육향상, 아동사망을 감소, 그리고 상수도 수질 개선, 위생시설 개선을 포함한다. 특히 2015년까지 인간발전지수를 0.85까지 향상시키는 내용을 담고있는 중국의 HDI향상에 관한 발전목표이다.

<표 14> 중국의 발전목표 및 진전(1990-2015)

	국가/지구	1990년	2001년	2015년
빈곤	중국 일인당 GDP (PPP)	1603	4020	
	동아시아 태평양지역 일인당 GDP(PPP)	2346	4233	
기아	중국 영양부족인구(%)	16	9	8
	동아시아 태평양지역 영양부족인구(%)	16	10	
교육	중국 초등학교 입학률(%)	97	93	100
	동아시아 태평양지역 초등학교입학률(%)	96	93	
성별교육	중국 초/중학교 남녀학생비율(%)	81	98	100
	동아시아태평양지역 초/중학교 남녀학생비율(%)	84	89	
건강	중국 5세이하 아동사망률(천명당 사망자수)	49	39	16
	동아시아 태평양지역 아동사망률(천명당 사망자수)	58	43	
상수도	중국 개선된 수원획득 인구비율(%)	71	75	86
	아시아 태평양지역 개선된 수원 획득인구비율(%)	71	76	
위생시설	중국 개선된 위생시설 획득인구 비율(%)	29	38	65
	동아시아 태평양지역 개선된 위생시설 획득인구 비율(%)	35	46	
인간발전	중국 인간발전지수	0.624	0.721	0.85
	동 아시아 태평양지역 인간발전지수		0.722	

출처; 胡鞍鋼, 王亞華, 《國情與發展》, 北京, 青華大學出版社, 2005, p199.

<표 15>의 GDP 중 인적자본 투자의 비중에 의하면 2005년 중국의 교육지출과 위생지출 합계는 10.33%로서 해마다 높아졌는데 고소득 국가의 14.83%에는 못 미쳤지만 중상소득 국가의 11.09%에는 근접해 있다.

23) 출처;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5.

〈표 15〉 GDP 중 인적자본 투자의 비중 (단위%)

국가유형	교육지출	위생지출	양자합계
저소득 국가(2000)	3.44	4.3	7.74
중하 소득 국가(2000)	2.90	5.3	8.20
중상 소득 국가(2000)	4.49	6.6	11.09
고소득 국가(2000)	4.63	10.2	14.83
중국(1995)	2.10	4.2	6.30
중국(2000)	3.56	5.1	8.66
중국(2005)	4.53	5.8	10.33

출처;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6.

문맹상황 변화도 1949년 80%에서 2000년 8.72%로서 문맹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²⁴⁾. <표 16> 중국의 15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년수는 1978년 개혁개방 당시 평균 교육년수 4.6년에서 2003년 7.36년으로 증가하였다.

〈표 16〉 중국의 15세 이상 인구 교육정도와 평균 교육년수(1982-2003) %

총인구 점유율%	1982	1990	1995	2000	2003	1982-2003변화량
문맹 인구	23	16	12	6.7	8.7	-14.1
초등학교 졸업	35	37	38	36	31	-4.1
중학교 졸업	17.8	23	27	34	35.7	17.9
고등학교 졸업	6.6	8.0	8.3	11.1	12.5	5.9
전문대졸업 이상	0.6	1.4	2.0	3.6	5.1	4.5
평균교육년수(년)	4.6	5.5	6.1	7.1	7.36	2.75

출처; 胡鞍綱, 王亞華, 《國情與發展》, 北京, 青華大學出版社, 2005, p80.

중국인의 고등학교 졸업생수는 2003년 2억 3천만 명으로 1982년에 비하여 3.1배로 증가하였다²⁵⁾. <표 17> 중국의 총 인적자본 증가(1982-2003)에 의하면 중국의 15세-64세의 인구는 1982년 6억 2천만 명에서 2003년 9억 천만 명으로 증가하여 인구점유율은 1982년 61%에서 2003년 70%로 증가하였다.

24) 教育部網站(www.moe.edu.cn)

25) 胡鞍綱, 王亞華, 《國情與發展》, 北京, 青華大學出版社, 2005, p.80.

<표 17> 중국의 총 인적자본 증가(1982-2003)

	1982	1990	1995	2000	2003	평균증가율%	증가지수 1982=1
15-64세 인구(만인)	62517	76260	81393	88798	90976	1.8	1.46
총인구 점유율(%)	61	67	67	70	70		
평균 교육년수(년)	4.6	5.5	6.0	7.1	7.4	2.25	1.0
총인적자본 (억인년)	28.8	42	49.5	63	67	4	2.3

출처 胡鞍鋼, 王亞華, 《國情與發展》, 北京, 青華大學出版社, 2005, p.65.

주: 총 인적자본= (15-64세 인구)×(평균 교육년 수)

<표 18> 중국의 3대 발전전략은 중국의 2002년 이후 발전목표가 조화로운 사회건설, 발전관은 인간중심발전이며 발전수단은 균형발전이다. 공평과 효율의 관계는 공평을 우선으로 하여 공평한 사회, 사회평등을 우선순위에 두는 정책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표 18> 중국의 3대 발전전략

	제1대 발전전략 (1950-1978)	제2대 발전전략 (1978-2002)	제3대 발전전략 (2002년 이후)
발전목표	영국과 미국 추월	소강사회 추구	소강사회 건설, 조화사회 건설
발전관	정치우선, 혁명으로 생산촉진	물질우선 경제발전 추구	인간중심, 인류발전, 빈부양극화 방지
공업화 도로	국가공업화, 민간자본 배척	국가공업화, 민간자본 참여허가	국가와 민간이 공동 공업화 추진
발전수단	균형발전	불균형 발전	균형발전
참조모델	소련 모델	동아시아 모델	중국의 길
경제와 사회관계	사회발전 중시	경제발전 우선론	경제와 사회의 협조적 발전
발전과 자원관계	개발자원, 자원과피	자원약탈 자원낭비, 저효율 이용	자원절약형 사회, 고효율 이용
발전과 환경관계	환경홀대	발전우선, 환경희생	성장과 환경 협조발전, 녹색성장
공평과 효율관계	평균주의, 공평우선	효율우선론	공공서비스, 사회분배, 공평우선, 시장제도 효율촉진
정부기능과 유형	만능 정부	경제건설을 주요 직능으로 하는 경제발전형 정부	제도건설을 주요 직능으로 하는 공공 서비스형 정부

정부와 사회관계	정부가 사회를 조정하고 지배와 피지배관계	정부가 사회조정, 제한적으로 사회참여 흡수	정부와 사회협력, 공동관리
대외관계	일변도, 자급자족	대외개방, 수출지향, 무역 자유화,	전면적 대외개방, 수출지향, 무역 자유화
사회합의	계급투쟁	빈곤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사회공평, 사회평등, 사회조화와 발전 동시추구.

출처 胡鞍鋼, 王亞華, 《國情與發展》, 北京, 青華大學出版社, 2005, p.164.

V. 결론

중국의 부상은 21세기의 세계정세를 바꾸어 중국이 경제대국, 정치대국, 그리고 군사대국 이라 문화대국이 될 것이다. 개도국들에게는 발전경험과 발전모델을 제공할 것이다. 중국의 미래발전 모델은 첫째, 높은 인간개발지수와 생활의 질을 갖추고 있으며, 둘째, 빈부의 양극화 해소를 담고 있다. 셋째,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원절약형의 경제체계를 포함하고 있다. 2025년을 전후하여 중국이 국제사회의 새로운 강자가 될 것이다. 2009년 건국 60주년을 맞아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 논의가 시작되었다. 동아시아는 중국 강대국 정책의 기반이다. 2001년 11월 주룽지(朱鎔基) 총리는 브루나이에서 열린 아세안과의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제안했다. 중국의 동아시아에로의 귀환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ASEAN이 추구하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핵심가치는 상호존중, 공동이익 추구하고 평등주의, 반패권적이고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다원주의이다. 중국의 대외정책인 조화로운 세계, 평화공존과 가치관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 공통가치를 통해서 동아시아 지역의 긴장해소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²⁶⁾ 중국의 부상과 함께 동아시아에 변화가 초래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장을 위해 '동아시아의 일체화' 과정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전 수상은 중국의 부상은 위협이 아니라 기회라고 주장하였다. 중국은 거대한 시장일 뿐 아니라 주요 투자국이라 평가했다. 중국에 대한 동남아 국가의 인식변화는 첫째, 중국이 주변국과의 화해정책을 취했기 때문이다. 둘째,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인민폐 절하 유혹을 참고 화폐가치를 유지하여 중국시장을 개방하여 주변국의 금융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었다. 동시에 인도네시아와 태국에 원조를 제공해 책임있는 대국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26) 邵宗海, 앞의 책, p.349

2002년 ASEAN과 연이어 4개의 주요협정을 맺고 2003년 ASEAN과의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ASEAN의 중국위협론은 감소하였다. 동아시아 공동체구상은 이러한 상황에서 출현하였다. 동아시아에서의 경쟁은 소프트 파워의 싸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의에서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하드파워를 넘어선 소프트 파워도 중요하다. 동아시아 지역의 협력요소는 공통의 이익(mutual benefit)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의 이익을 찾아내어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제도적 협력의 틀을 만들 때에, 지역협력이 가능하다. 경제적 통합이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면서 경제적 이익에 의해 지역협력을 도모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제적 상호 의존(economic interdependency)은 관계의 악화를 막는 방화벽이 될 전망이다.

동아시아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은 동아시아에서의 강대국간의 전쟁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냉전후 ASEAN과 6자회담 같은 지역안보기구가 동아시아에서 전쟁가능성을 제약하는 작용하고 있다. 동아시아 공동체는 다자간 안전협력의 발전을 견인하고 중국이 부상과정 중 에서 외부전쟁에 휩쓸리는 것을 피하는데 도움을 줄 핵심적인 다자기구이다.²⁷⁾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협력을 도모할 것이다. 동아시아는 중국에게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동아시아국가와 포괄적인 협력하에 동아시아 공동체를 건립할 때 비로소 평화적 부상을 이룰 수 있다.²⁸⁾

중국이 주변국가와 우호 관계를 맺는 것은 TPP구축을 통한 미국의 압력을 막아내는 중요한 국제적인 기반이 된다. 동아시아 공동체를 건립함으로써 세계화의 부정적 영향을 막아내어, 국제기구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중국은 동아시아의 중심이 되어 주도적으로 국제정세를 중국부상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동아시아 공동체가 실질적인 진전을 하면 중국의 부상을 희망하지 않는 일본이 강경정책을 포기하고, 중국과 협력하려는 태도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된다.²⁹⁾ 중국은 동아시아를 세계로 나가려는 교두보로 삼고 이 지역에서 중화의 질서를 다시 세우려고 시도하고 있다. 중국에게 동아시아는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는 생존권역이다. 이를 위해 다자주의적 접근과 지역경제 협력의 제도화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2010년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 건립에 성공하였다.³⁰⁾ 경제적인 성공과 중국의 문화를 앞세운 동아시아 패권전략을 통하여 지역적 패권국으로서의 과거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되찾으려 할 것이다. “동아시아에 근거를 두고 세계로 나아간다”는 동아시아 전략의 성공을 기반으로 세계규칙의 조정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7) 閻學通, 孫學峰, 앞의 책, p.115.

28) 邵宗海, 앞의 책, p.106.

29) 閻學通, 孫學峰 앞의 책, pp.103-115.

30) Avery Goldstein, *Rising to the Challeng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5, pp.118-135.

9.11사건 이후 미국정부는 중국정책을 재설정 한다. 미국이 당면한 최대위협은 중국이 아니라 비정부 테러리즘 조직으로 전환된다. 현재의 미국은 중국을 선제공격하는 군사전략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부상과정 중 평화확보 전략으로 우호적 외교관계를 수립해야만 한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질서를 인정하면서 미국과의 역할공조 확대와 UN에서의 협력, 세계경제위기에서의 미국국채 보유유지 및 확대를 통한 공생관계 유지, 그리고 중국의 문화적 포용성을 전파할 전망이다. 미국과의 지역패권 공유를 통하여 미중이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공동으로 이끌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을 비롯한 중국의 주변국이 중국부상전략의 최대 수혜국이 될 전망이다. 중국의 부상이 주변국, 특히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한데, 현재보다 상품 이동과 노동력 이동, 그리고 양국간 자본이동의 규모가 훨씬 더 커져 육상, 해상에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역무역협정 체결의 결과 상호의존도가 훨씬 높아질 것이다. 중국의 부상속도는 빠르고 규모가 엄청나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이다.³¹⁾

참 고 문 헌

- 丁松泉, 《中國崛起與中美關係》,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5.
- 何蘭 編, 《冷戰後 中國對外關係》, 北京, 中國傳媒大學出版社, 2005.
- 胡鞍鋼, 《中國崛起之路》,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7.
- 胡鞍鋼, 王亞華, 《國情與發展》, 北京, 青華大學出版社, 2005.
- 李琪, 《中國和平發展與中國共產黨》, 北京, 中國中央黨校出版社, 2007.
- 馬 洪, 王夢奎, 《中國發展研究》, 北京, 中國發展出版社, 2006.
- 門洪華 《構建中國大戰略的框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5.
- 芮約銘, 《從1997-2007年 中共國防費支出評估其軍力發展的眞象》, 胡錦濤政權之續與變論文集, 臺北.
- 中國大陸研究學會, 2007.
- 上海社會科學院世界經濟與政治研究院, 《國際體系與中國的軟力量》, 上海, 時事出版社, 2006.
- 邵宗海, 《中國和平崛起與中國現代民族主義的互動》, 臺北, 韋伯文化國際出版有限公司, 2009.
- 王文章, 《中國現代化進程中的國家與市場》,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4.

31) 胡鞍鋼, 《中國崛起之路》,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7. pp.382-395.

- 徐湘林, 《漸進政治改革中的 政黨, 政府與社會》, 北京, 中信出版社, 2004.
- 閻學通, 孫學峰 《中國崛起與其戰略》,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5.
- 俞新天, 《國際體系中的中國角色》,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2008.
- 張劍荊, 《中國崛起》. 北京, 新華出版社, 2005.
- 鄭永年, 《中國民族主義的復興-民族國家向何處去?》, 香港, 三聯書店, 1998.
- 朱鋒, 《國際關係理論與東亞安全》,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7.
- 中國現代國際關係研究院, 《國際戰略與安全形勢評估2007/2008》, 北京, 時事出版社, 2008.
- 中國社會科學院社會學研究所. 《中國社會形勢分析與預測》, 北京, 北京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6.
- 中國現代國際關係研究院, 《國際戰略與安全形勢評估 2007 / 2008》, 北京, 時事出版社, 2008.
- Avery Goldstein, *Rising to the Challeng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5.
- Jonathan Unger, *Chinese Nationalism*, New York, An East Gate Book, 1996.
- Joseph Fewsmith, *China Since Tiananme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 Matthew Chew, “Contemporary Reemergence of the Qipao”, *The China Quarterly*, 189, March, 2007.
- Peter Hays Gries, *China's New Nationalism*, Berk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5.
- 마틴 자크,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 서울, 부키, 2010.
- 이회욱, 《중국의 국가 대전략 연구》, 서울, 폴리테이아, 2007.
- 정재호편, 《중국의 강대국화》, 서울, 길, 2006.
- 조영남, 《21세기 중국이 가는길》 서울, 나남, 2009.
- 하영선편, 《동아시아 공동체 신화와 현실》, 서울, EAI, 2010.
- 한석희, 《후진타오 시대의 중국 대외관계》, 서울, 폴리테이아, 2007.
- 히메다 미쓰요시, 《20세기 중국사》, 서울, 돌베개, 2003.
- 최태강, 《러시아와 동북아》, 서울 오름, 2004.

ABSTRACT

A Study of Chinese Peaceful Rise and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Il-ho, Shong* · Gye-Young, Lee**

China will replace the global governance of the 21st century in 2050. The rise of China provide the Chinese development model to other developing countries. There are positive element and disability element in China's 'peaceful rise' strategy at the same time. Success of the reform and opening up, market liberalization, economic interdependency, economic globalization, stability of ruling power, consolidation of one-party rule and soft power increase are the promotions of peaceful rise. China's rise as a power nation begins by regaining the superpower status in East Asia. East Asia is a lebensraum assuring a continuing growth to China. For this lebensraum, China shows an interest in institutionalization of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The core values of ASEAN, namely the mutual respect, harmonious coexistence, co-prosperity, egalitarianism and pluralism are in conform to China's policy of harmonious world and peaceful coexistence. Through this common value the tension in East Asia will be alleviated. By the regional hegemony strategy based on soft power and economic success, China will try to regain the past glorious position. Attaining status as a coordinator of the world rule will be based on the success of the East Asian strategy. Korea and other neighboring countries will be the best beneficiary countries of the China's rise strategy. China's rising strategy will have a profound effect on neighboring countries especially, Korea. The scale of the movement of goods, labor, and capital between the two countries will become much larger than present. Through regional trade agreements, economic interdependency between Korea and China will increase.

Key Words : Chinese rise, peaceful rise, Beijing consensus, harmonious world, economic interdependency

* Professor, Dongguk University, College of the Social Science. Economicis

** Adjunct Professor, Dongg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